

일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김민서¹, 김건엽^{1,2*}, 김경나³, 김광환⁴

¹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²경북대학교 의과대학, ³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⁴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Baby Food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 Rural Area

Min-Seo, Kim¹, Keon-Yeop Kim^{1,2*}, Kyeong-Na Kim³, Kwang-Hwan Kim⁴

¹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of Kosin University

⁴Department of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이유식 실태와 지식, 태도 등을 살펴보고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92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가구 및 아기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이유식 실태, 이유식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 등이었다. 이유식 지식 평균점수는 3.79였고, 태도 평균점수는 4.07이었으며, 실천군은 25.0%였다. 이유식 지식에서는 총 자녀수가 2명 이상, 아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출신국적이 중국 또는 일본, 한국어 능력이 상급, 아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결혼생활 기간이 6년 이상, 아기 할머니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이유식 주담당자가 아기 어머니인 경우, 이유식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서 높았다($p<0.05$). 이유식 태도에서는 총 자녀수가 2명 이상, 아기 어머니 한국어 능력이 상급, 이유식 주담당자가 아기 어머니인 경우와 이유식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서 높았다($p<0.05$). 이유식 실천에서는 아기 어머니 출신국적이 일본과 캄보디아인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이유식 주담당자가 아기 어머니인 경우에서 높았다($p<0.05$). 이유식 실천에 따른 지식과 태도 점수를 보면, 이유식 실천군에서 지식($p<0.001$) 및 태도가 미실천군보다 높았다.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이유식 실천을 위해서 우선 이유식 주담당자인 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 동료 지지자를 활용해서 이유식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출신국적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Abstract Abstract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15 to March 2016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baby foods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The survey includ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and infant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baby fo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n score of baby food knowledge was 3.79, 4.07 for attitudes, and the practice group was 25.0%. In the knowledge of baby food, the groups with a total number of two or more children, high educational background for both the father and mother, Chinese or Japanese nationality, high Korean language ability, and marriage for at least 6 or more years was higher ($p<0.05$). In the attitude of baby food, the groups with a total number of two or more children, a higher mother's Korean language, and the mother in charge of the baby food were higher ($p<0.05$). In the case of baby food practice, the groups the baby mother was from Japan and Cambodia, there was no occupation, and the mother was in charge of the baby food were higher ($p<0.05$). Knowledge and attitude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baby food showed a higher knowledge ($p<0.001$) and attitude in the weaning practiced group than unpracticed. To produce baby food for inf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Korean language ability of infant mothers who are in charge of baby food,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related to infant formula utilizing the supporters of the neighboring moth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and support that is contingent upon the nationality of the native people while remaining mindful of the cultural implic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Attitude, Baby food, Knowledge, Multi-cultural families, Practice

본 논문은 김민서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eon-Yeop Kim (Kyungpook Univ.)

Tel: +82-53-420-4863 email: pmkky@knu.ac.kr

Received May 15, 2017

Revised June 19,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서론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다문화가구수는 278,036 가구로 2012년(266,547 가구)에 비해 4.3% 늘어났다. 다문화가구 중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출신 부부 가구는 74.4%, 부부 모두 외국출신 가구도 25.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3%를 차지하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이에 관한 조사에서는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9.2%로 2012년(50.6%)보다 증가했으며 식습관(36.9%), 가족행사(23.0%), 자녀양육방식(19.0%) 순으로 나타났다. 적응 상태에 대한 조사에서 2012년과 비교 시 문화 차이와 편견·차별로 인한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2012년 47.1%에서 2015년 38.3% 감소하였으나 외로움·자녀 양육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다소 증가했다[1-4].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와 자녀 육아의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2-5]. 한국 사회는 자녀 양육 문제에서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은 육아의 고충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10-12]. 이러한 어려움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발달 과업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12-14]. 영유아는 일생을 통틀어 성장과 발달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15-16]. 영아가 출생 이후 모유, 분유 이외에 처음 접하게 되는 영양 공급원은 이유식으로써 영아 후반기의 적절한 영양공급 및 식습관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17-18].

이유를 시작하는 약 5개월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이유기라 정의하는데 유즙만을 섭취하던 섭식 형태가 유즙 이외의 반고형식 또는 고형식을 섭취하는 과정으로 이행되는 시기이다[19]. 세계보건기구와 UNICEF의 이유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생후 100일에서 4개월, 아기의 출생 당시 체중의 2배가 되는 6kg 정도에 도달하는 시기를 이유기로 권장하고 있다[20]. 만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유아의 비축 영양소가 고갈되고 영양소의 밀도에 있어서 수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유나 조제유 만으로는 부족하여 성장지연, 발육부진과 빈혈 등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이유

의 진행이 필수적이며 2010년 미국소아과학회의 철분 공급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유식을 생후 4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21]. 올바른 이유식 실천은 아기의 건강상의 영양소 제공 이외에도 아기의 치아발달, 혀 운동, 삼킴 운동, 손 놀이 등의 신체적 발달 및 정신적·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성장발달에 맞게 아기의 위 용량도 늘리고 소화능력과 대사, 배설 능력도 발달시킨다. 이유식은 편식을 예방하는 등 올바른 식사 습관 형성하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유식 공급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아기가 청소년 이후까지 성장하였을 때 본인 스스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생애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15,17].

생애주기에서 이유기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유식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특히 우리나라 문화와 국외 국가들의 문화가 융합되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이유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각 국가마다 이유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적으로 다를 수가 있기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기 어머니를 포함한 이유식을 담당하는 가족의 특성에 따라 이유식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올바른 이유식 실천을 통해 건강한 아동 및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다문화가정 중 7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유아가 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정의 주 이유식 담당자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사된 설문지는 130명이었다. 이중 모든 문항에 온전히 응답한 설문지 127명 중 이유식 도입 시기가 4-6개월이므로 이유식과 관련이 없는 아기 월령

0-3개월인 27명, 주 이유식 담당자와 응답자 다른 6명, 질병이 있어서 의사와 상의 후 이유식 진행한 2명 등 총 35명을 제외한 92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에 동시 통역자로 근무 중인 베트남 1명, 캄보디아 1명, 중국 1명, 일본 1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조사 장소는 다문화지원센터, 보건소 예방접종실, 영양플러스실, 영양상담실 등과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2.3 연구도구

설문지는 조사 대상 가구 및 아기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17문항, 이유식 실태 5문항, 이유식에 대한 지식 5문항, 이유식에 대한 태도 5문항, 이유식에 대한 실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일반적인 특징

아기 특성으로 아기의 성별 및 월령, 출생 순위, 이유식 진행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가족 및 부모 특성으로 가족 형태, 아기 어머니의 학력, 나이, 출신국적, 직업 유무, 아기 아버지의 학력, 나이, 출신국적, 직업 유무, 아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결혼 생활 기간, 아기 할머니와의 동거 여부, 아기의 주 양육자 등을 조사하였다.

2.3.2 이유식 실태

주 이유식 담당자가 직접 응답하였으며 첫 이유식 횟수와 현재 이유식 횟수, 월령별 이유식 및 수유(조제분유) 공급 방법, 이유식 정보를 얻는 출처, 이유식 교육 및 상담 여부, 교육 및 상담을 받은 사람, 장소,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2.3.3 이유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이유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문항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사업 지침의 내용과 기존 이유식 관련 연구[17, 22]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기초로 보건학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1인, 영양사 1인이 함께 수정하였다.

이유식 주 담당자의 이유식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0-3개월에 모유나 분유 외에 다른 식품을 주거나 분유에 다른 것(설탕, 설탕 등)을 섞어 먹어도 좋다’, ‘이유식을 먹일 때는 아기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젓병에 넣어서 먹이는 것이 좋다’, ‘이유식을 먹일 때 아기

가 설사를 하거나 두드러기 반응을 보여도 곧 익숙해질 것이므로 계속 주는 것이 좋다’, ‘일반우유(생우유), 계란 흰자는 생 후 12개월이 지나서 먹이는 것이 좋다’, ‘이유식은 태어나서 4-6개월경에 쌀을 갈아 조리한 미음을 이용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식에 관련된 태도를 묻는 문항은 ‘직접 가정에서 만든 이유식을 먹이려고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음식을 흘리더라도 아기가 스스로 먹도록 격려한다(격려할 것이다)’, ‘이유식을 젓병이 아닌 숟가락으로 먹이도록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배려한다(배려할 것이다)’, ‘아기의 월령에 부적합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식에 관련된 실천을 묻는 문항은 ‘우리 아기 이유식은 만 3-6개월 사이에 시작하였으며 성인(가족)이 먹는 국에 밥을 말아 먹이거나 간이 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생후 1년 되기 전에 달걀흰자, 일반우유(생우유), 딸기, 오렌지(귤), 메밀, 새우 같은 갑각류, 꿀, 등 푸른 생선 등은 주지 않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이유식에 대한 지식은 1문항 당 1점으로 점수화하여 총점이 5점이며, 이유식에 대한 태도는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균으로 점수화 하였다. 실천 문항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문항이며 실천군과 비실천군으로 나눌 때 실천 문항과 이유식 도입시기 표를 활용하여 이유식을 시작하면 안 되는 월령 0-3개월, 월령 6개월이 지나 시작한 경우, 12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한 경우는 실천군에서 제외하고 2문항을 모두 맞춘 경우 실천군으로 하고 2문항 중 1문항이라도 오답인 경우 비실천군 나누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아기 특성, 가구 특성, 이유식 특성 등의 기본사항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아기 특성, 가구 특성, 이유식 특성에 따른 이유식 지식, 이유식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고, 아기 특성, 가구 특성, 이유식 특성에 따른 이유식 실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이유식 실천 여부에 따른 이유식 지식 및 태도 점수를 비교

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아기 특성에 따른 이유식 지식, 태도 및 실천

대상자의 아기 특성 및 이에 따른 이유식 지식, 태도 및 실천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아기 성별은 남자 56명(60.9%), 대상자의 아기 월령은 13-62개월의 아기가 46명(50.0%)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총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38명(41.3%)이었으며, 이유식 지식 평균점수는 3.79였고, 태도 평균점수는 4.07이었다. 아기 특성에 따른 이유식 지식과 이유식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총 자녀수였다. 총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이유식 지식점수가 4.21, 태도점수가 4.33, 자녀수가 3명인 경우 각각 4.00, 4.10으로 높았다($p<0.05$). 이유식 실천군은 전체 대상자 중 23명(25.0%)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변수는 없었다.

3.2 대상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이유식 지식, 태도 및 실천

대상자의 가구 특성 및 이에 따른 이유식 지식, 태도

및 실천은 표 2와 같다. 아기 어머니 학력은 중졸이 38.0%), 아기 어머니 연령은 30세 미만이 79.3%로 많았으며, 아기 어머니 국적은 베트남이 50.0%로 많았다. 아기 어머니 직업은 없는 경우가 65.2%였으며, 어머니 한국어 능력은 상급인 경우가 45.7%로 많았다. 아기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가 63.0%로 많았고, 아기 아버지 직업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90.2%였다. 결혼생활기간은 1-5년인 경우가 54.3%로 많았으며, 아기 할머니와 동거하는 경우가 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 따른 이유식 지식에서는 아기 어머니 학력, 아기 어머니 출신국적, 어머니 한국어 능력, 아기 아버지 학력, 결혼 생활 기간, 아기 할머니와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아기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출신국적이 중국 또는 일본, 한국어 능력이 상급인 경우에 이유식 지식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아기 아버지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 결혼생활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아기 할머니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유식 지식이 높았다. 가구 특성에 따른 이유식 태도에서는 아기 어머니 한국어 능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p<0.05$), 어머니 한국어 능력이 상급인 경우 이유식 태도가 높았다. 가구 특성에 따른 이유식 실천에서는 아기 어머니 출신국적과 아기 어머니 직업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아기 어머니 출신국적이 일본과 캄보디아인 경우와 직업이 없는 경우 이유식 실천이 높았다.

Table 1.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baby food following baby's characteristics

Variables	N(%)	Knowledge	Attitude	Practice	
		Mean±S.D	Mean±S.D	Practiced group	Unpracticed group
Baby sex					
Male	56(60.9)	3.91±1.31	4.12±0.74	14(25.0)	42(75.0)
Female	36(39.1)	3.53±1.61	3.98±0.64	9(25.0)	27(75.0)
Average age (month)					
4-6	9(9.8)	3.33±1.66	4.11±0.60	1(11.1)	8(88.9)
7-12	37(40.2)	3.70±1.43	3.97±0.80	12(32.4)	25(67.6)
13-62	46(50.0)	3.89±1.42	4.13±0.64	10(21.7)	36(78.3)
Total Number of children					
1	36(39.1)	3.17±1.56**	3.78±0.74*	9(25.0)	27(75.0)
2	38(41.3)	4.21±1.26	4.33±0.56	11(28.9)	27(71.1)
3	18(19.6)	4.00±1.19	4.10±0.70	3(16.7)	15(83.3)
Total	92(100.0)	3.79±1.34	4.07±0.67	23(25.0)	69(75.0)

* $p<0.05$ ** $p<0.01$

Table 2.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baby food following householder characteristics

Variables	N(%)	Knowledge	Attitude	Practice	
		Mean±S.D.	Mean±S.D.	Practiced group	Unpracticed group
Education level of baby's mother					
≥ College	26(28.3)	4.19±1.20 [†]	4.01±0.62	5(19.2)	21(80.8)
High school	13(14.1)	3.85±1.82	4.13±0.75	5(38.5)	8(61.5)
Middle school	35(38.0)	3.83±1.43	4.01±0.62	9(25.7)	26(74.3)
≤ Primary school	18(19.6)	2.94±1.26	4.05±0.75	4(22.2)	14(77.8)
Age of baby's mother					
≥ 30 years old	19(20.7)	4.16±1.12	4.13±0.97	2(10.5)	17(71.2)
< 30 years old	73(79.3)	3.66±1.50	4.05±0.62	21(28.8)	52(89.5)
Nationality of baby's mother					
Vietnam	46(50.0)	3.13±14.5 ^{***}	3.99±0.72	5(10.9)	41(89.1) ^{**}
Cambodia	20(21.7)	3.90±1.37	4.01±0.79	10(50.0)	10(50.0)
China	11(12.0)	5.00±0.00	4.42±0.45	3(27.3)	8(72.7)
Japan	7(7.6)	4.86±0.38	4.09±0.70	4(57.1)	3(42.9)
Other	8(8.7)	4.38±1.06	4.15±0.67	1(12.5)	7(87.5)
Job of baby's mother					
Have	32(34.8)	3.50±1.60	3.88±0.68	4(12.5)	28(87.5) [†]
Non have	60(65.2)	3.90±1.34	4.17±0.70	19(31.7)	41(68.3)
Korean proficiency of baby's mother					
Higher	42(45.7)	4.60±0.83 ^{***}	4.22±0.67 [†]	12(28.6)	30(71.4)
Middle	32(34.8)	3.66±1.38	4.11±0.63	10(31.2)	22(68.8)
Lower	18(19.6)	2.00±0.97	3.64±0.77	1(5.6)	17(94.4)
Education level of baby's father					
≥ College	34(37.0)	4.21±1.15 [†]	4.04±0.78	7(20.6)	27(79.4)
≤ High school	58(63.0)	3.50±1.54	4.09±0.65	16(27.6)	42(72.4)
Age of baby's father					
≥ 40 years old	63(68.5)	3.65±2.13	4.10±0.76	14(22.2)	49(77.8)
< 40 years old	29(31.5)	4.00±1.93	4.00±0.56	9(31.0)	20(69.0)
Job of baby's father					
Have	83(90.2)	3.78±1.41	4.08±0.68	22(26.5)	61(73.5)
Non have	9(9.8)	3.56±1.81	3.98±0.92	1(11.1)	8(88.9)
Marriage duration					
1-5 years	50(54.3)	3.40±1.50 [†]	4.04±0.61	14(28.0)	36(72.0)
6-10 years	33(35.9)	4.24±1.25	4.10±0.80	9(27.3)	24(72.7)
11-15 years	9(9.8)	4.00±1.32	4.09±0.88	0(0.0)	9(100.0)
Cohabitation with baby's grandmother					
Yes	38(41.3)	3.18±1.49 ^{**}	3.96±0.74	7(18.4)	31(81.6)
No	54(58.7)	4.17±1.27	4.14±0.67	16(29.6)	38(70.4)

* p<.05 ** p<.01 *** p<.001

3.3 대상자의 이유식 관련 특성에 따른 이유식 지식, 태도 및 실천

대상자의 이유식 관련 특성에 따른 이유식 지식, 태도 및 실천은 표 3과 같다. 이유식 주담당자가 아기 어머니인 경우 64.1%, 첫 이유식 횟수가 3회 이상이 50.0%, 이유식 상담 및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56.5%로 많았다. 이유식 정보를 얻는 출처에 대한 다중응답에서는 대중매체 63.0%, 보건소 59.8%, 가족 및 친척 20.7% 등의 순이었다. 이유식 특성에 따른 이유식 지식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이유식 주담당자, 첫 이유식 횟수, 이유식 상담 및 교육여부였으며, 이유식 태도에서는 이유식 주담당자, 이유식 상담 및 교육여부였다($p<0.01$). 이유식 지식에서 이유식 주담당자가 아기 어머니인 경우 4.47점, 첫 이유식 횟수가 2회인 경우와 3회인 경우 4.40점, 3.39점으로 1회의 2.33점보다 높았다. 이유식 상담

및 교육여부는 교육을 받은 경우가 4.25점으로 높았다. 이유식 태도에서 이유식 주담당자가 아기 어머니인 경우 4.20점, 이유식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가 4.30점으로 높았다. 이유식 특성에 따른 이유식 실천에서 관련성이 있었던 변수는 이유식 주담당자였다($p<0.01$). 이유식 주담당자가 아기 어머니인 경우 이유식 실천이 33.9%로 높았다.

3.4 이유식 실천에 따른 지식, 태도 및 실천

이유식 실천에 따른 지식과 태도 점수는 표 4와 같다. 이유식 실천군에서는 지식 4.70점으로 미실천군의 3.45점보다 높았다($p<0.001$). 태도에서는 실천군이 4.29점으로 미실천군 3.95점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baby food following characteristics related weaning food

Variables	N(%)	Knowledge	Attitude	Practice	
		Mean±S.D.	Mean±S.D.	Practiced group	Unpracticed group
A person in charge of baby food					
Baby's mother	59(64.1)	4.47±0.95***	4.20±0.77**	20(33.9)	39(66.1)**
Baby's grandmother	33(35.9)	2.48±1.28	3.83±0.47	3(9.1)	30(90.9)
Number of baby food					
1 times	6(6.5)	2.33±1.37***	3.87±0.27	-	-
2 times	40(43.5)	4.40±1.19	4.16±0.74	-	-
≥ 3 times	46(50.0)	3.39±1.41	4.01±0.70	-	-
Consultation and education of baby food					
Yes	40(43.5)	4.25±1.28**	4.30±0.67**	12(30.0)	28(70.0)
No	52(56.5)	3.38±1.46	3.89±0.68	11(21.2)	41(78.8)
Information of baby food (multi-check)					
Mass media	58(63.0)	-	-	-	-
Public health center	55(59.8)	-	-	-	-
Family and relatives	19(20.7)	-	-	-	-
Friend of baby's mother	15(16.3)	-	-	-	-
Books	13(14.1)	-	-	-	-
Clinics and hospitals	11(12.0)	-	-	-	-
Multi-cultural center	10(10.9)	-	-	-	-

* $p<0.05$ ** $p<0.01$ *** $p<0.001$

Table 4. Knowledge and attitude of baby food according to practice group

unit: Mean±S.D

Variable	Knowledge	Attitude
Practice of baby food		
Practiced	4.70±0.64***	4.29±0.57
Unpracticed	3.45±1.50	3.95±0.76

*** $p<0.001$

4. 고찰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이유식 주담당자에게 해당 대상 아기 특성, 가구 특성, 이유식 특성을 조사하고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이유식 지식 및 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이유식 도입 시기 및 실천 문항에 따라 이유식 실천군과 미실천군으로 나누어서 아기 특성, 가구 특성, 이유식 특성에 따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유식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총 자녀수에 따른 이유식 지식과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자녀수의 증가 할수록 양육 경험이 늘어나면서 이유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 태도가 둘째 자녀에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기 어머니 학력의 경우 이유식 지식이 대졸 이상에서 가장 높아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식점수가 높았다. 선행연구[21-23]에 의하며 학력과 영양지식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대졸 이상이 이유식 관련 지식 점수가 높았다.

이유식의 경우 애기를 가진 이후 교육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유식 관련 지식이 높아지고 이후 올바른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어 능력이 이유식 관련 지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소통 능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이유식 관련 영양지식의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나이가 평균 20대 초반이므로 30세 미만보다는 30세 이상의 경우 결혼 생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경험이나 한국어 능력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유식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통계청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출신국적은 중국(한국계) 30.7%, 중국 22.4%, 베트남 20.8% 등의 순이었는데[1], 본 연구에서는 출신국적 비율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다. 출신국적이 중국인 경우 한국계였으며, 국적이 일본이나 중국인 경우가 이유식 지식이 높았고 베트남의 지식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조사 대상 중 출신국적이 중국인 경우 대부분 조선족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비교적 높아 이유식 지식 점수나 태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아 이유식 지식 점수와 실천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베트남의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

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유식 지식 점수가 낮고 실천도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경우 지식과 태도 점수는 높지만 실천이 상대적으로 낮고 캄보디아의 경우 지식 점수는 비교적 낮지만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족성이나 문화적인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유식을 통한 영유아 보건사업에 출신국적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아기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지식과 태도 점수가 높았고 실천도 높았다. 이는 직업이 없는 경우 비교적 아이양육을 시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기 할머니 보다 아기 어머니가 이유식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 이유식 지식, 태도 및 실천이 높았는데 이는 아기 엄마가 이유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아기 할머니인 경우 이유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식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 지식 및 태도, 실천이 높게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이유식 등 영양관련 교육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이 부족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이 이유식 정보를 대중매체에서 얻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를 통한 일대일 및 집단 교육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건강정보 접근이 건강행태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4] 및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25-27]에 의하면 원하는 건강정보를 맞춤형으로 얻고 선별 및 수용하여 행태로 이어지는 것은 인터넷에서 얻은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여부의 문제이므로 국가차원의 인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갖는 연구의 제한점 및 추가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이유식을 주로 담당하는 대상자로 국한되었기에 향후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많은 이유식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성이다. 이유식 관련 지식 및 태도, 실천 문항은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침 문항을 활용하였으나 아직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조사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적합한 조사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이유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유식에 대한 지

식, 태도, 실천 등의 실태와 아기 특성, 가구 특성, 이유식 특성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이유식 관련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유식 지식, 태도, 실천 등과의 관련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이유식 실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일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주 이유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설문조사하였고 최종 분석대상자는 92명이었다.

이유식 주담당자가 아기 어머니인 경우 64.1%, 이유식 상담 및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56.5%로 많았다. 이유식 정보를 얻는 출처에 대한 다중응답에서는 대중매체 63.0%, 보건소 59.8%, 가족 및 친척 20.7% 등의 순이었다. 이유식 지식 평균점수는 3.79였고, 태도 평균점수는 4.07이었으며, 이유식 실천군은 전체 대상자 중 25.0%였다. 이유식 실천에 따른 지식과 태도 점수를 보면, 이유식 실천군에서 지식($p < 0.001$) 및 태도가 미실천군보다 높았다.

이유식의 올바른 공급은 생애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다문화가정에서 올바른 이유식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영양격차와 이로인한 건강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이유식 실천을 위해서 우선 이유식 주담당자인 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와 자녀 육아의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동료 지지자를 활용해서 이유식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식 주담당자가 아기 할머니이거나 아기 어머니의 출신국적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지역사회 개입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출신국적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2015.
- [2] Min Jung Kim, Yun Jeong Kim, Jin Ah Chung, "Korean adaptation experience family life in multicultural wome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3, pp. 155-163, June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6.07>
- [3] Haiying Huang, Mijung Le,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factors and the coping strategi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rais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4, pp. 415-425, Aug.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8.47>
- [4] Im AeDuck, "A Study on Social Distance toward Unmarried Moth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6, pp. 365-384, June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6.21>
- [5] J. R. Lim, M. S. Jung, "Factors affecting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of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5, no. 4, pp. 2244-2255,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4.2244>
- [6] Y. H. Lee,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The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 focused on Social capital", Kangnam University, 2007.
- [7] M. Y. Cho, "(An)exploratory study on the mentoring process for mother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Sunghsin University, 2010.
- [8] S. S. Cho, H. S. Kim,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in children's bilingu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4, no. 11, pp. 5549-5558,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11.5549>
- [9] Min Jung Kim, Yun Jeong Kim, Jin Ah Chung, "Korean adaptation experience family life in multicultural wom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3, pp. 155-163, June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6.07>
- [10] B. S. Ahn, "A study of international children'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 With focus on the children from Korean-Japanese international families of unification church members in Chonan city, Korea", Dongguk university, 2002.
- [11] H. J. Lee, "A Study on Child Care Work and Lives of Immigrant Single Moms",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23, no. 1, pp. 171-214, 2013.
- [12] M. H. Noh, "(A) Study on Child Rearing in Marriage Immigrant Families", Keimyung University, 2009.
- [13] Heejin Lee, Jinhee Kim,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Educational Condition from Cultural Diversity Perspectiv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 pp. 281-288, Jan.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1.39>
- [14] Haewon Byeon, SungHyoun Cho, "Determination Factor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Using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3, pp. 109-118,

June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6.13>

- [15] K. Y. Lee, "Young Children Nutrition Management",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vol. 26, pp. 39-40, 1981.
- [16] Heeseon Ko, "A Study on pre-childhood Educators' Eating Habits and Physical Health through the Nutrition Education Activ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5, pp. 309-320, May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5.45>
- [17] Y. S. Lim, "(The) Effect of Weaning Method on Preschool-Children's Nutritional Status and Food Behavior", Myongji University, 1997.
- [18] Se-Jin Eom, "A Study on Temperament, Basic Lifestyle Habits, and Negative Psychological Factors of Mother with Infa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5, pp. 341-349, Oct.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10.42>
- [19] D Field, E. S. Draper, "Survival and place of delivery following preterm birth",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Fetal and Neonatal Edition, vol. 80, no. 2, pp. 1359-2998, 1994.
- [20] Brown K. H., "WHO/UNICEF review on complementary feed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 WHO/UNICEF guidelines on complementary feeding",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0.
- [21] Robert D. B., Frank R. G., "Diagnosis and prevention of iron deficiency and iron-deficiency anemia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0-3 years of ag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vol. 126, no. 5, pp. 1040-1090, 2010.
- [22] H. J. Ko, "A study on The Dietary Habits and Nutritional Knowledge of Marriage-immigrant Females in GwangJu and Chonnam Provi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0.
- [23] S. Y. Jung, "(An)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 and unbalanced die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yunghee University, 2010.
- [24] S. D. Kim, M. G. Kim,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pproach to information on improvement of health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6, no. 5, pp. 3268-3275,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5.3268>
- [25] H. S. Lee, S. H. Lee, J. A. Choi, "A stud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s digital poverty : Focusing on target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1-7,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1.1>
- [26] Young-Ju Jee, Yoon-Ji Kim, "The Difference of Health Behavior between Screening and Non Screening Group by Health Examinations Servic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6, pp. 503-510, June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6.68>
- [27] Kyoung-Nam Kim, Young-Ju Jee, "Predictor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Elderly: Based on the 2013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3, pp. 197-205, June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6.22>

김민서(Kim, Min-Seo)

[정회원]



- 2016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건강증진학과 (보건학 석사)
- 2009년 3월 ~ 2009년 12월 :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 지역행태개선사업 영양사
- 2010년 3월 ~ 2016년 12월 :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 2017년 1월 ~ 현재 :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 금연상담사

<관심분야>

보건영양, 건강증진, 보건학, 지역사회영양학, 다문화학

김건엽(Kim, Keon-Yeop)

[정회원]



- 2003년 2월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학박사)
- 2003년 5월 ~ 2007년 2월 : 건양 의대 교수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충남 의대 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경북의대 교수

<관심분야>

건강도시, 건강증진, 지역사회의학, 만성질환관리

김경나(Kim, Kyeong-Na)

[정회원]



- 2017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관리, 병원행정, 의무기록정보관리

김 광 환(Kwang-Hwan, Kim)

[종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병원행정